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활동목표	방학길 구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도심 속의 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을 걸으면서 숲의 이로움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본다.		
해설주제	호젓한 오솔길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본다.		
해설구간	약 3.4km	소요시간(')	약 2시간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1. 첫 만남	인사 및 방학길의 특징		10
해설	2. 둘레길과 마을	도심 속의 허파		20
	3. 숲의 시간	소나무, 부엽토의 역할		30
	4. 전망대	도봉산 봉우리의 유래		30
정리	5. 숲의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20
마무리	6. 마무리	인사 및 느낌 나누기		10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첫 만남	<p>안녕하세요?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연환경안내원 000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실 길은 북한산 둘레길 19구간 방학길입니다. 방학 길은 방학동 마을에 인접한 도봉산자락을 걷는 길입니다. 정의공주묘에서 시작하여 무수골 입구까지 총 3.4km의 구간을 마을 뒷산 길 걷는 기분으로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 방학동 마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주민들은 일상을 사는 공간이니만큼 탐방객들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지나친 소음을 자제해 주시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지길 바랍니다.</p>
2. 둘레길과 마을	<p>옆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포도 농장입니다. 조금 전까지 산에 있는 기분이 드셨다면 이제 도시로 나온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 자동차 소리 등 도시의 북적이는 소리가 들리시죠?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로 불리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북한산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서울과 더불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보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둘레길은 주민들에게는 동네 뒷산으로 쉼터가 되기도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나오기도 하는 공간입니다.</p> <p>이 길로 쪽 내려가시면 바가지 약수터가 나옵니다. 약수터에 가시면 새벽부터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가지 약수터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을까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둘레길과 마을	<p>예,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명칭이라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 하지만 여러분처럼 저도 바가지로 떠먹어서 바가지 약수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넓은 공터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운동도 하고 모여서 담소도 나누는 마을 회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3. 숲의 시간	<p>여기서부터는 산에 오르시는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도 등산하는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p> <p>발걸음이 편하시지 않나요? 좀 폭신평신했던 것도 같고 다른 길을 걸을 때보다 무리가 단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발아래에는 솔잎이 깔려 있습니다. 토양 빛이 여느 토양과는 다르게 검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수십 년도 더 된 낙엽들이 쌓이고 쌓여 부식된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는 배수가 좋고 수분과 양분의 축적 능력이 뛰어나며, 지원을 높이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입니다.</p> <p>주위를 둘러보시면 소나무가 뻗뻗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2배 이상의 피톤치드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며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이 되어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줍니다. 소나무를 만나면 심호흡을 하면서 숨도 고르고 피톤치드를 마시면 둘레길 산책에 활력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심호흡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합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숲의 시간	<p>이렇게 비교적 소나무가 많거나 참나무가 많은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숲에도 나이가 있는데요, 숲의 형태에 따라 숲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숲이 나이를 먹고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천이 초기종이라 하는 반면 참나무류나 서어나무, 단풍나무류를 천이 후기종 혹은 숲이 변화의 절정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종이라 하여 극상종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숲은 과거 황폐화도니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자연적인 숲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일 수종으로 조림되었던 지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야에서 소나무가 밀려나면서 그 자리에 참나무 류가 주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천이 후기 종으로 채워진 숲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p> <p>그러나 산불과 같은 교란은 다시 숲을 초기의 모습으로 바꾸어놓게 되는데, 비교적 가볍고 작으며 날개가 달려 멀리까지 이동이 용이한 소나무의 씨앗들이 정착하면서 완전히 개방도니 공간에서 빛을 한껏 받으며 새로운 숲의 역사를 일구기 시작합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전망대	<p>(전망대에 올라온 후) 바로 앞에 보이는 마을이 방학동입니다. 방학동은 조선시대에 왕이 도봉서원 터를 정하기 위해 도봉산 중턱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다가 학이 평화스럽게 노는 것을 보고 방학굴이라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유래로는 이곳 지형이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어떠신가요? 아쉽게도 지금 학이 노닐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둥글게 둘러싸인 마을의 모습이 유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선만자) 뒤를 도시면 도봉산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얗게 봉우리의 한쪽 면이 흰하게 드러난 봉우리는 선인봉입니다. 그 옆에 만장봉, 자운봉입니다. 자운봉은 도봉산의 최정상입니다. 높이는 정확히 739.5m로 불교에서 뜻하는 상서로운 붉은 구름이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줏빛 자에 구름 운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암봉은 현재 선인봉에 가려져 위에 꼭대기 부분만 보이는 형상인데 그 이름은 봉우리가 만장의 길이를 가진다고 해서 일만만 자에 길이 장자를 써서 만장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산 정면에서 이 세 개의 봉우리를 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만장봉이 정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세 개의 봉우리들 중 가장 높아 보여 도봉산 정상이라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이처럼 측면에서 보시면 만장봉이 아닌 자운봉이 도봉산의 최정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산의 생김새와 높이가 달리 보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전망대	<p>다음으로 도심을 향해 희고 매끄러운 암벽을 길게 드러내고 있는 선인봉이 보이실 것입니다. 암벽장비가 있어 등반가능한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 봉우리에 오른다는 생각은 함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선인봉이란 암봉은 신선이나 도를 닦는 선인들이 오를 수 있는 신성한 곳이라 생각해서인지 그 이름을 선인봉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도봉산에서 유일하게 암벽등반이 허용되는 곳이 선인봉입니다. 도봉산은 보시다시피 봉우리가 꼭 이어져 있어서 봉우리 봉에 길도자를 써서 도봉산이라 불리게 됐습니다.</p>
5. 숲의 이야기	<p>(사거리) 네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길을 선택할 여지가 많아 보이지만 둘레길을 제외한 다른 길은 비정규 탐방로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둘레길을 따라 저희는 직진을 하지만 잠시 길을 보겠습니다. 사거리 좌우로 난 길이 일반 등산로와는 달라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양쪽이 1미터 정도 움푹 패어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골과 같은 키 높이의 꼬마 아이가 숨는다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의 깊이가 대단합니다.</p> <p>이 길은 옛날에 소달구지가 지나던 길이라고 합니다. 무수골에서 숲을 만들어서 방학동으로 나르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께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자연 역시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대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방학동과 도봉산 봉우리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탐방을 더욱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들레길 (방학길)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마무리	<p>지금 계신 곳은 무수골입니다. 무수골 세일교를 기점으로 2구간이 끝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수골은 수철동 혹은 무쇠골로 불렸는데 대장간이 많은 동네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수골을 따라 걷는 길에서는 걱정하는 마음 훌훌 털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p> <p>감사합니다.</p>

참고서적 (신갈나무 투쟁기/차윤정/지성사)